

## 야마다 히로유키 Hiroyuki Yamada

Born in 1970, Japan

목적이나 장소에 따라 가치에 대한 평가가 바뀐다는 것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만, 동시에 가치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대상이 사회 속에서 갖는 가치에 대한 고찰이 나의 작품의 줄거리이다. \_야마다 히로유키

야마다 히로유키는 그릇을 만드는 작가로서 자신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가치평가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가령 똑같은 그릇을 만들더라도 작품이 소개되는 장소나 유통 경로 등에 따라 가격 즉, 가치가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그동안 작가는 무를 작품의 주요 소재 중 하나로 삼아왔는데, 이는 무가 일본에서는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자급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단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평가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형태들의 무들을 설치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이 상이한 계층적 가치를 획득함을 은유한다.

*It is interesting to see how the assessment of values changes depending on purpose or location, but such changing assessments also make us question what values essentially are. The main plot of my work is based on an exploration of the value of objects in social settings. \_Hiroyuki Yamada*

As an artist who makes ceramic vessels, Yamada has been questioning the bases of value judgments we often experience in society. He was inspired by his observation that identical ceramic vessels were pric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re they were presented and how they were distributed. Radishes have been one of the major themes of Yamada's work because they are sold for similar prices across Japan and all radishes for sale there are homegrown. Radishes thus appeared to be a perfect material for capturing the differences in valuation depending on social context. The current exhibition displays Yamada's diverse radish-themed works that stand as metaphors of how the exact same object can gain different class values.



거미줄(흙무 시리즈)

Spider Web(Clay Radish Series) (detail)

2016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each Ø20×45cm

도자 ceramic